

기획

도시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7> 일본 고베 마노지구

주민 직접 도시계획하고
지자체 지원받아 조성
도보 30분 거리 시설 집적
마을 만들기 성공 '롤모델'



일본 고베시 마노지구는 주거·공장 혼재지역으로 지난 1960년대 공해추방운동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결속하기 시작한 지난 1980년 마노지구 마치즈쿠리구상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는 일본 최초의 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노지구를 마을만들기 모델로 삼고 있다.

건물·도로...주민 한명 한명의 꿈으로 재건

마노지구는 효고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이면서 국제무역도시이자 일본 제3위의 무역항인 고베시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구의 원권으로는 신미나토강, 오른쪽에는 효고 운하가 흐르고 위쪽에는 국도 2호선이 달리고 있는 등 도심 외곽이지만 뛰어난 교통여건 때문에 주거지역과 공장이 한 데 섞여 있다. 전체 면적은 40ha로 지구 내 인구는 약 4100명(2010년 말 현재), 인구밀도는 ha당 104명 정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4.1%에 달해 마노지구가 속해 있는 나가타구의 평균 28.8%보다 높고 전국 도시 평균 22.5%보다도 10% 이상 높다. 고령자는 늘고 젊은이는 떠났으며, 여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거지역처럼 빈집과 공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노지구는 일본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마치즈쿠리', 즉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대도시 구도심 또는 영세한 거주지역 내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도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취재진이 마노지구를 찾은 것은 지난달 28일. 고베시 나가타구 마치즈쿠리추진부 마치즈쿠리과의 직원 오니시 토무씨에게 마노지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뒤 지도와 마노지구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장 탐방에 나섰다.

좁은 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건축물, 도로와 건물의 연결 공간의 허다 등은 여는 일본 동네와 다를 바 없었으며, 유독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폭 6~7m 정도로 보이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은 없었으며, 4~7층 규모의 연립주택과 1~2층 단독주택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마노지구가 이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은 사실 1995년 고베대지진(한신·아와지대지진)의 영향이 컸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로는 더 좁았고, 노후 건축물의 비율도 높았던 마노지구는 '동네 재생'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다. 지구 내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주택이 있다. 그 형태도 형태지만 지어진 과정이 다채롭다는 것이다. 먼저 지구 내 주택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커뮤니티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등이 있다. 지구 북동쪽에는 '마노 하이즈 사업용 분양주택'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3층 건물로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구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인근에 노인들을 위해 원룸부터 방이 3개인 아파트까지 면적이 다양한 3층 12세대 주택과 철거민들을 위한 3층 15세대 주택이 한 데 모여있다. 이들 주택 가운데는 광장과 어린이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쓰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자연스럽게 노인과 어린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3곳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들 주택은 기존 일본식 전통주택인 장옥(나가야)을 허물고 인근 도로 폭을 넓힌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건립됐다. 2곳은 3층, 1곳은 5층 규모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히가시시리아케(東尻池) 코트다. 이 주택은 지진 이후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한 것으로, 5층 높이에 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상점도 2곳이 입주해 있다. 공동주택은 고베시가 자금을 지원,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해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것으로, 이들 모두 1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다. 공적주택은 고베시가 젊은 세대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오랜 기간 버려져 있던 공터를 사들여 공공사업이 공동주택을 건립한 뒤 이를 임대해주는 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건설업체나 토지소유주의 수익이 아니라 동네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거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주택 사이사이에는 공원 8곳, 연못, 어린이공원, 보육소, 노인요양시설인 '고향의 집', 아동관, 지역복지센터, 마치즈쿠리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과 도시기반·사회복지시설들이 단절되지 않고 집적돼 있고 누구나 도보 30분 내에 어떤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마노지구 마치즈쿠리추진회 이사하라 야스코(여·77) 부대표는 "노인이든, 어린이든, 장애인든, 젊은이든 모든 이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마노지구"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웃과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아가면서 이를 극복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노지구 골목길과 3층 규모의 공동주택 전경.

마치즈쿠리 추진회 마치히사 사무국장

“마을변화 힘의 원천은 주민 힘 모아 야쿠자 몰아내기도”

“지금까지 마치즈쿠리추진회 회장 등 집행부가 5번 바뀌었습니다만 30여년 전 작성한 마치즈쿠리 구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이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처럼 믿어주세요.” 마노지구마치즈쿠리추진회 마치히사(71) 사무국장은 여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주름살 깊은 얼굴에 안경을 쓰고 양복 상의를 걸친 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적 없는 ‘토박이’로, 그만큼 동네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다. “전체 인구의 1/3은 무관심하고, 1/3은 이동인구이며, 1/3만이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을 사랑하는 1/3이 어떻게 하나냐에 따라 그 지역은 너무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인 지난 2006년 한창 마치즈쿠리에 열심이었던 이들 주민에게 ‘색다른’ 시련이 닥쳤다. 일본 조직폭력배인 야쿠자가 지역 내에 사무실을 연 것이다. “주민 600명이 모여 야쿠자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1명이었거나 10명이었으면 겁이 났겠지만 600명이라는 숫자가 가니 야쿠자도 겁을 먹더라고요. 그 시위 뒤에도 계속된 집회와 대화 요구 등에 결국 야쿠자들도 사무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즈쿠리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을 이끄는 주민대표가 ‘사심’ 없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정책과 주장을 해야 주민들 모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이란 것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지자체나 추진회가 주축이 돼 일단 벌여놓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노지구마치즈쿠리추진회는 주민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에 지역에 관한 공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 공약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가진 정당을 주민들이 지지하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마치즈쿠리와 비슷한 운동들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순수한 주민조직입니다.” 글=/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영남인으로 동교동계에서 40여 년간 DJ와 한길을 걸은 외길 인생 민주당의 산 역사 김태랑 총장이 전하는 신의와 열정의 정치 담론

우리는 마을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은 파란 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녕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장, 국회사무총장 역임

출판기념회

일시 2011. 12. 1.(목)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내린 28가지 결정, 그 결정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토머스 J. 크라우트웰, 에드윈 키에스터 지음 | 엄자현 옮김 | 528쪽 | 18,000원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